

한복 입고 ‘까르르~’... 한정식엔 ‘엄지 척’



캐나다 비치수구 선수 9명 중심사·전통문화관 시티투어 한국 불교·전통차에 호기심 할머니 선물로 부채 사기도



17일 오전 캐나다 비치수구선수단이 광주 동구 운림동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전통악기 체험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캐나다wangju.co.kr

“광주의 따뜻함을 가슴에 품고 돌아갈 캐나다 전역에 알리겠습니다.”

18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입구에 키가 2m 가까운 장신 선수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캐나다 비치수구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국제우호친선협회와 광주시 지원으로 광주 시티투어에 참가했다. 비치수구는 이번 대회 시범종목이다.

캐나다 비치수구 선수단 9명은 이날 중심사와 광주 전통문화관을 둘러봤다. 감독인 로빈(39)을 제외한 8명 선수는 모두 첫 한국 방문이라고 했다. 버스에 오른 선수들은 광주 관광에 들떠 있었다. 스티븐(18)은 “너무 흥분된다”며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수촌에서 버스로 30여 분 이동해 도착한 중심사. 선수단은 처음 접하는 한국의 사찰을 신기한 듯 유심히 살폈다. 이날 중심사는 백종 3재 법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선수들은 평일임에도 중심사를 찾아 불공을 드리는 신도들을 바라보며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절을 하고 있느냐”며 불교 문화에 궁금증을 드러냈다.

선수단은 중심사 삼신각에 들어가 절을 하기도 했다. 삼신각이 산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알려주자 감독인 로빈은 “어쩐지 좋은 기운이 흘러 나오는 것 같다. 이 기운을 받아 곧 있을 메달 결정전에

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선수단은 동구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을 찾았다. 선수단은 입석당에서 오현진 광주문화재단 연구원에 대해 전통 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시음을 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선수들은 따뜻한 전통 차를 마시며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수단은 한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거구의 선수단은 한복을 착용한 자신들이 모습이어 색했는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멈추지 않

았다.

선수단은 전통문화관에 전시된 전통 부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통문화관에서 마음에 드는 부채를 하나씩 선물하자 다른 부채도 갖고 싶다며 사비를 들여 구매했다.

팀의 막내 안토니오(18)는 “할머니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다”며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3개의 부채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후 광주의 한 한정식 식당에 도착한 선수들은 육전, 잡채, 불고기 등을 맛

다. 생소한 음식이지만 낯지, 우렁 등도 먹어보며 “모든 음식이 완벽하다. 한국인들은 항상 많은 반찬을 먹는다는 데 그럼 매일이 크리스마스일 것 같다”며 웃었다. 일정을 마친 캐나다 비치수구 대표팀은 선수촌으로 돌아갔다.

한편 캐나다 비치수구 대표팀은 20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중국과 3, 4위 결정전을 치른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소나기골 먹으며 혹독한 데뷔 체계적 선수 육성 시스템 필요

광주·전남 선수 아름다운 도전 ③ ‘수구’ 정병영·한효민 “졌지만 값진 경험... 오늘 유종의 미 거둘 것”



한효민



정병영

“하도 골을 많이 먹어서 안타깝더라도 구요. 한국 수구도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해야 합니다.” 정회진 전남도체육회 생활체육팀장은 지난 17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수구 조별리그 A조 2차전 세르비아전 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날 한국팀은 2-22로 졌다.

정 팀장의 아들은 22골을 먹는 동안 골문을 지켰던 정병영(한체대) 선수로,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혹독한 실전경험을 쌓고 있다.

세르비아는 세계수영선수권에서 5번이나(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포함) 정상에 오른 최다 우승 국가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도 세르비아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미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확보한 상태다.

한국을 상대로 세르비아는 총 37개의 슈팅을 퍼부었다. 이 중 골문으로 향한 것은 32개였고, 정병영은 10개의 슈팅을 막아냈다. 그리스와의 1차전에서 26점을 내줬던 한국은 이번 세르비아전에서 4골을 더 막아냈다. 정병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구 강국’ 세르비아의 공을 직접 받아본 정병영은 “상대 페이크(속임 동작)에 속아서 실수를 많이 했다. 모든 페이크가 다 슛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팀인 세르비아를 상대로 실점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했고 팬들의 응원 덕에 더 힘을 낼 수 있었다”며 “골키퍼로서 실점이 줄어 든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며 “크게 졌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남은 경기도 후회 없이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한효민(한체대)은 국가 대표팀의 골게터다. 고교시절 제34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목상고(전 전남체고)의 단체전 우승을 일군 주역이다. 당시 그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정병영의 1년 후배이기도 하다.

한효민은 세르비아전 1쿼터 중반 첫골을 넣었다.

그는 한국팀의 2경기 연속패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슈팅할 타이밍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운 좋게 코스가 비껴가서 골이 됐다”며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막판에 많이 지쳐 찬스가 많이 있는데 우리 결정력이 부족했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마무리를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 19일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정병영과 한효민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된다.

/*특별취재단=윤영기 기자 penfoot@

“긴급 통역 해드립니다”

봉사자 15명, 외국인 선수단·관광객 대상 이동 서비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외국인 관광객과 선수단을 위해 통역봉사자들이 경기장을 순회하며 봉사는 이동 통역서비스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동 통역서비스단은 대회 통역봉사자 832명 가운데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15명으로 주부·대학생·직장인 등으로 구성됐다고 대회 조직위는 덧붙였다.

이들은 대회 기간 경영·다이빙·수구 경기장이 모여 있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일원을 순회하며 외국인 선수단과 방문객을 돕는다.

경기장을 방문한 외국인이 통역서비스가 필요할 때 대회 조직위 인력지원상황실(062-616-3280-3)로 연락하면 이동 통역서비스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별취재단=김형호 기자 khh@

자율주행버스 탑승 체험 기회

25~28일 남부대 주 경기장 일원...호피서 사전예약 접수

광주세계수영대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5G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버스 탑승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주관 통신사인 SKT가 오는 25일부터 대회가 종료되는 28일까지 4일간 남부대 주 경기장 일원에서 자율주행버스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까운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이 될 자율주행차를 미리 체험하는 자리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우리나라의 5G 기술도 접할 수 있다고 대회 조직위는 전했다. 자율주행버스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홈페이지(www.gwangju2019.com) 초기화면 ‘자율주행 체험사전예약’ 팝업창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특별취재단=김형호 기자 khh@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시골집 완도군 청산면 대지 440㎡ 주택 52㎡ 조용한생활 최저 48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500여주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6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주철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다가구대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 월 150 임대 은행 3천 매도 2억6천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입아·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대지 641㎡ 주택 200㎡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주철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월산동 농성초 옆 도로 2층 주택대지 140㎡ 주택 153㎡주차장있음 2억4천
- 대인동 버스도로 땅 709㎡ 건평 810㎡ 사육 등 적합 공사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3억5천 매도 13억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계획관리지역 3646㎡ 읍에서 5분거리 다세대 등 적합 7억7천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점 산 97404㎡ 감정 8억4천천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장성토지매매!!

- 4층규모 APT 50채 건축부지 (평탄작업 완료)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전
- 면 적 : 3,646㎡(1,104평)
-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 좌측 : 5m 이격 편백숲, 꿈의 산책길·오솔길
-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